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자매이자 쇼레쉬 여행사 Shoresh Tours의 케이 윌슨은 크리스천 여행자인 크리스틴 로건 Christine Logan과 하이킹 중이었습니다. 둘이 키부츠 마타 Kibbutz Mata 근처의 등산로 곁에 있는 언덕에 앉았을 때, 두 아랍 남자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케이는 그들이 자신의 “다윗의 별 Magen David” 목걸이를 뜯어 버리고는 톱니가 있는 긴 식도로 12번을 찔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죽은 척을 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공포에 질려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틴도 찔렸습니다. 가진 모든 돈도 털렸습니다. 케이는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입엔 재갈이 물려있고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크리스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는 비틀거리면서도 겨우 근처의 주차장으로 내려 왔고,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밤새 그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크리스틴의 시체는 일요일 아침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살인자들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케이는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발 예슈아 공동체

예루살렘에 위치한 저희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의 비전을 품고 탄생했습니다. 저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사랑에 헌신된 관계, 담대한 복음 전파, 히브리어의 사용 및 저희 주변의 유대 공동체라는 포괄적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생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는 세계 선교의 사명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이번 주에만도 저희는 에디 Eddie, 재키 Jackie, 마티 Mati와 알렉스 Alex를 인도로 보내며, 유발 Youval을 런던으로, 리아트 Liat를 스위스로 보냅니다. 저희의 비전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전세계 열방에 말씀을 전하도록 단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끝까지라도(행 1:8)” 예슈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공동체를 찾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 믿지는 않는” 두 이스라엘인 D와 Y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번 주 아하발 예슈아에서는, 오피르 Ophir가 강력하게 현대적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오, 신들 가운데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라는 후렴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 나오는 말씀으로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노래 중간에 저는 저희 위로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계시록 15:3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15:5의 말씀도 이어 읽었습니다. “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하늘에서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 저희는 성령 충만한 현대적 예배와 언약적 고대의 예배를 결합시키는 것이 하늘을 여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임 Chaim이 앞으로 나아와 히브리 전통곡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를 선창으로 인도했습니다. 즉흥으로 저희는 현대적이고 은사주의적인 charismatic 형식을 옛 언약적 형식과 엮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회중 가운데 충만하여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어느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허나 성령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과 결합될 때, 특별한 능력이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재림과 예슈아의 지상 왕국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새 사람의 예배

아리엘 블루멘탈 Ariel Blumenthal

계시록 7:9-10와 14:6을 보면, 저희는 마지막 때에 대한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서 나아온 다양한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이 유대 풍습을 택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는 것도,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아닙니다(고전 7:17-24).

열방과 이스라엘에서 나아온 한 새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모든 문화를 구속하고 성화시켜, 아버지요 만유의 창조주께 창조적이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 아름다운 태피스트리 ^{tapestry}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민족 집단을 다스리는 정사와 권세에 결정적 펀치를 날리어(엡 3:10), 대추수와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입니다.

루터 교회와 이스라엘

탈 하로니 Tal Haroni, 루드비크 베네커 Ludwig Benecke

루터 교회는 보통 독일 유대인들의 중앙 위원회 ^{Central Council}와 갈등 관계를 피하기 위해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스스로를 분리합니다. 지난 주, 루터 교회의 의장인 니콜라우스 슈나이더 ^{Nikolaus Schneider}가 기독교 잡지인 <이데아 스펙트럼 ^{Idea Spektrum}>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 EKD(독일 복음주의 교회) 의장으로서 발언하신 것 중에, 기독교-유대인 간 더 많은 대화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에 찬성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나이더: 그들은 교회에 큰 선물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방 교회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방인만 있는 교회인데, 그들로 인해 교회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전도하는 것은 여전히 제가 문제를 갖는 부분입니다. 유대인과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기에, 하나님을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나 예수님을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유대인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을 우회할 순 없습니다. 교회를 피해갈 순 있겠지만, 예수님은 아니지요.

이게 일종의 시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방 교회가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자로 인정한다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